

제주국제교류센터 설립 필요성과 방안 모색

제주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이 중 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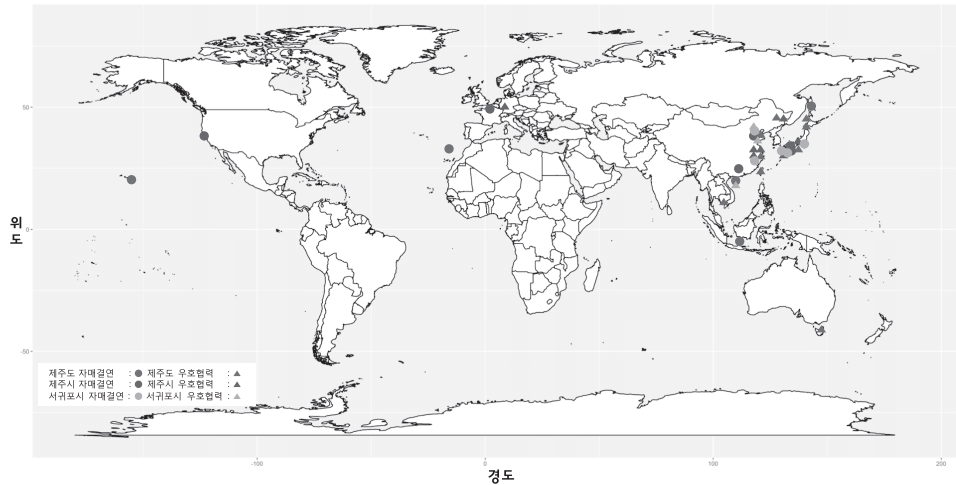
1. 개요

1995년 민선 지방자치 출범과 함께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증대되면서, 지방정부의 국제화는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과제로 인식되어 왔다. 국내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 역량 등을 증진시키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국제화 역량을 제고하고자 하였으며, 여러 방면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김미연(2010), 이윤식(2004)). 이 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자매결연과 우호협력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국제교류를 들 수 있다. 2015년 기준 국내 16개 광역자치단체가 41개 국가의 180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47개 국가의 199개 도시와 우호협력을 체결하였으며, 문화·인적·경제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교류를 추진하고 있다¹⁾.

제주특별자치도는 1986년 11월 25일 미국 하와이주(州)와 자매결연 체결을 시작으로 국제화의 포문을 열기 시작하였다. 2016년 제주특별자치도는 세계 각국의 도시 가운데 5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8개 도시와 우호협력을 체결하였으며, 관할 기초자치단체 측면에서 제주시는 6개 도시와 자매결연, 7개 도시와 우호협력, 서귀포시는 5개 도시와 자매결연, 3개 도시와 우호협력을 체결한 상태이다(그림-1 참고).

1)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http://www.gaok.or.kr/>), 검색일: 2017.01.20

〈그림-1〉 제주특별자치도의 자매결연·우호협력 도시의 분포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자매협력·우호협력 체결 현황 자료는 부록 중 제시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주요행정총람-국제자유도시분야', 2016.06.10.

제주특별자치도가 해외 여러 도시들과 자매결연·우호협력을 체결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제주특별자치도청의 노력을 들 수 있을 것이다. 2017년 제주특별자치도 실국별 주요 업무보고를 살펴보면, 문화체육대외협력국, 관광국, 해양수산연구원, 한라도서관, 제주도립미술관 등 주요 실국 및 부서에서 제주특별자치도를 국제도시로 더욱 도약시키기 위한 사업들을 추진 및 계획한 바 있다.

그러나 국내 지방정부의 국제화 추진과정이 지역적으로 차별화된 국제교류의 실체를 발견하기 어렵고, 국제교류의 경험과 정보부족의 시행착오 등으로 인해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성태규·이재현(2007)은 충청남도의 사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의 비효율성을 구조적 요인과 기능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이우권(2009)은 전라북도의 사례를 통해, 박용길(2003)은 강원도의 사례를 통해 국제교류의 실익이 크지 않음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본문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제주국제교류재단의 설립이 제주지역 국제화 추진에 있어 어떠한 기능과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를 고찰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하 내용은 우선 제주국제교류재단 설립의 이론적 의미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지역국제교류재단의 현황과 한국국제교류 실천네트워크를 통해 국제화의 필요성과 환

경적 변화를 이해하고자 하며, 마지막으로 제주국제교류재단의 설립 필요성과 환경 조성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국제교류는 양 국가 간 쌍방향 흐름의 교류를 의미하는 것으로 수직적인 차원이 아닌 수평적인 차원의 개인, 집단, 기관 국가 등 다양한 주체들이 각각의 우호, 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의 이익 등을 목적으로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인 협력관계를 의미한다²⁾. 국가 간 지방정부의 자매결연은 국제교류의 대표적인 유형 중 하나로 “한 지방정부가 다른 국가의 지방정부와 상호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 긴밀한 협력을 약속하고 행정·경제·문화·인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는 교류협력의 약속을 맺는 것”을 의미한다³⁾. 저명한 미래학자인 케빈·켈리(1994)⁴⁾는 “미래사회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모든 것을 모든 것에 연결시키는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러한 점에서 지방정부의 자매결연·우호협력 등 국제적인 네트워크 확대는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적 과제인 것이다.

지방정부의 국제교류는 외향적 국제화와 내향적 국제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⁵⁾. 외향적 국제화는 외국과의 관계를 실질적으로 촉진하는 교류와 함께 통상 등의 영역까지 확장되어 전시회와 박람회 참가, 그리고 지역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되는 것들이다⁶⁾. 내향적 국제화는 지역단위의 모든 정책이 국제적 수준에서 세워져야 하고 지구촌 의제와 연계하여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계획을 세우고 추진함으로써 세계인이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⁷⁾. 외향적 국제화는 단기간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쉽지만, 내향적 국제화는

2)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2007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백서”, 2008

3) 우양호·이정석(2010), “지방정부 국제교류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도시간 자매결연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24(4): 393-422.

4) Kelly, K. “New Rules for the New Economy: 10 Radical Strategies for a Connected World”, Viking, 19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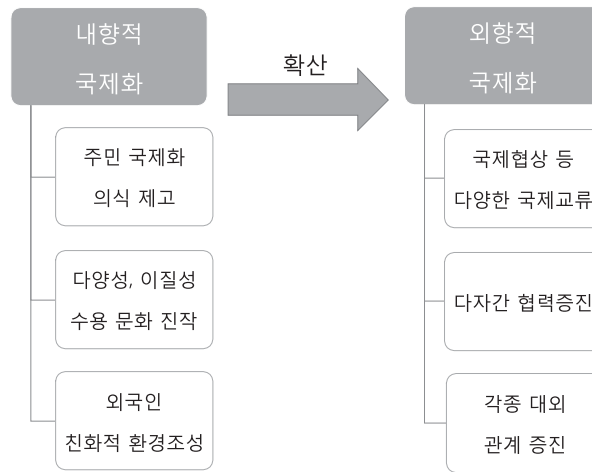
5) 김미연,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확산과 동형화”,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010.12

6) 정낙현, 이홍규,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센터의 설치시설에 관한 연구-일본의 국제교류센터사례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2008

7) 김준식, “정부 및 NGO의 내향적 국제화 현황과 방향”,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2008

비교적 장기적이고 가시성이 없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외향적 국제화가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내향적 국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공공연하게 인식되고 있다⁸⁾.

〈그림-2〉 내향적 국제화와 외향적 국제화의 관계



자료: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센터의 설치시설에 관한 연구

한 가지 재미난 점은 내향적 국제화의 중요성은 다른 학문 영역인 경제학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Adam Smith는 무역 발생의 원인으로 절대 우위론, 절대적인 경쟁력의 차이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절대적인 경쟁력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무역발생의 원인을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하였고, 이에 대해 David Ricardo는 상대적인 경쟁력, 즉 비교우위론을 통해 무역발생의 원인을 설명하였다⁹⁾. David Ricardo의 비교우위론이 Adam Smith의 절대우위론의 한계를 일부 보완하였지만 David Ricardo의 비교우위론 역시 개인의 기술과 요소부존도 차이가 외생적으로 혹은 사전적으로 주어지는 것을 가정하였기에 양자 간에 사전적인 경쟁력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무역에 대해 설명을

8) 1980년대 이후 일본의 지방정부의 국제화 추세는 이미 외향적 국제화를 넘어 내향적 국제화에 더욱 큰 관심을 보인 점을 들 수 있음

(강병수, 이시철, “대구국제교류센터의 조직 및 운영 계획”, 대구경북연구원, 2005.07)

9) 실제 두 이론의 공통된 핵심은 분업이 상호이익은 물론 각 경제행위자의 이익까지도 증가시킨다는 것임

할 수 없게 된다¹⁰⁾. 杨小凯(양소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Adam Smith의 절대우위론과 분업이론을 결합하여 내생적 비교우위론을 제시하였으며, 국내무역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제무역의 경로와 구조를 설명·증명하였다¹¹⁾. 이하 내용은 그의 연구 중 제시한 한 사례를 소개하여 내향적 국제교류의 중요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우선 세계는 100개 국가와 m 개 종류의 상품이 존재하며, 세계 총인구는 10억 명, 국가별 총인구(M)는 1,000만 명으로 가정한다. 만약 교역효율성¹²⁾이 극단적으로 낮은 경우(“ $n = 0$ ”명), 모든 개인은 자급자족이 균형이기에 무역은 발생하지 않는다. 만약 교역효율성이 “ $n = 1,000$ ”명으로 개선된다면 각 국가내부는 분업을 통해 10,000개(= M/n)의 로컬시장이 생성된다. 로컬시장 내 각 개인은 999명의 타인들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그들 각각으로부터 하나의 상품을 구매한다. 이때 “무역은 인접할수록 먼저 발생한다.”는 가정 하에 10,000개 로컬시장 간 교역은 발생하지 않으며 통합된 국내시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교역효율성이 “ $n = 1,000$ 만” 명까지 개선된다면 더욱 높은 분업수준으로 국내시장은 통합된다($(M/n) = 1$). 그러나 국제무역은 여전히 발생하지 않는다. 만약 운송수단의 발전으로 인해 교역효율성이 “ $n = 1$ 억” 명까지 확대된다면 세계는 10개의 공동시장으로 구성될 것이다. 각 공동시장 내부는 10개 국가들로 구성이 되면 이때 비로소 국제무역은 발생하게 된다. 이때 10개 공동시장 간에는 여전히 무역이 발생하지 않으나, 만약 교역효율성이 극단적으로 증가하여 완전분업 균형수준에 도달하면 통합된 세계시장이 비로소 형성된다. 이 점이 바로 내생적 비교우위가 국제무역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근거를 의미한다.

만약 앞서 언급한 무역을 교류로 간주하고 고려하면, 내향적 국제화의 수준 향상은 내생적 비교우위의 증가를 의미하며, 내향적 국제화 수준 향상을 통해 외향적 국제교류를 야기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주지역의 내향적 국제화 수준 향상으로 제주지역 국제화를 더욱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하는 국내 기타지역 중 지역국제교류재단을 설립하여 내향적 국제화 수준 향상을 추진하는 지역들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10) 이러한 의미에서 David Ricardo의 비교우위론은 외생적 비교우위론이라고 불리기도 함

11) X Yang, A New Theory of Demand and Supply and Emergence of International Trade from Domestic Trade, Pacific Economic Review, 1996

12) 교역효율성이 향상될수록 교역의 장애요인이 감소하며, 본문 중 교역효율성은 서로 교역하는 그룹 내 인구수를 나타냄

3. 지역국제교류재단 현황과 한국국제교류 실천네트워크

1) 현황

2016년 8월 현재 한국의 17개 지자체 중 광주, 대전, 인천 등 10개 지역에 지역국제교류재단(센터)¹³⁾이 설립되었다(표-1 참고). 광주지역은 1999년 전국 최초로 지역국제교류센터를 설립하였으며, 이후 대전부터 전라북도까지 전국 각 지역에 지역국제교류재단(센터)이 설립되었다.

〈표-1〉 지역국제교류재단 설립 시기

구분	설립 시기	구분	설립 시기
광주국제교류센터	1999.6	서울글로벌센터	2008.1
대전국제교류센터	2005.7	울산글로벌센터	2010.3
인천관광공사	2005.9	수원시국제교류센터	2011.10
부산국제교류재단	2005.11	평택송탄국제교류센터	2012.2
대구경북국제교류협의회	2007.12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2015.11

자료: 신경구, “지역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시민단체의 역할과 의의, 한국지역사회학회 가을 학술대회”, 2016.11.28.
참고: 인천관광공사는 인천국제교류센터 → 인천국제교류재단 → 인천관광공사로 명칭이 변경됨

지역국제교류재단은 시민국제화사업, 국제교류사업, 외국인지원서비스, 국제화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외국인 생활상담, 한국어 교실, 유학생 지원, 통번역 공증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에서 외국인들의 현지화 수준을 높이고, 지역민으로써 동화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추진하고 있다.

앞서 지역국제교류재단(센터)의 국제교류 방향을 두 가지로 구분하자면 내향적 국제화와 외향적 국제화 두 가지로 구분이 가능함을 살펴보았다. 광주국제교류센터는 주요하게 내향적 국제교류에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는 외향적 국제교류에서, 그리고 부산국제교류센터는 내향적·외향적 국제교류에 있어 두각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표-2 참고).

13) 지역적 상황과 환경에 따라 재단으로 설립되기도, 센터로 설립되기도 함

〈표-2〉 광주, 수원, 부산 국제교류재단(센터)의 유형 및 주요 활동

구분	유형 및 주요 활동
〈광주국제교류센터〉	내향형 국제교류
* 지구촌 주민들이 어울려 사는 광주	외국인 생활상담, Gwangju News, 광주생활안내책자, 한국어 교실, GIC교실, 통·번역 공증서비스, 글로벌 커뮤니티 지원, 유학생 지원 공간이용
* 문화로 소통하는 국제교류	GIC토크, GIC투어, 홈스테이 Feel@Home, 오월음악회, 광주국제교류의 날, 글로벌 문화교실, 광주기념품
* 청년이 꿈을 키워나가는 세계	자원활동가, 인턴십, 청소년 교육프로그램
* 협력을 통한 지역 국제화 기여	협력 프로그램
〈수원시국제교류센터〉	외향형 국제교류
* 시민글로벌의식 함양사업	토크라운지, 글로벌 인문학 다문화 공감, 수원독일사랑협회, 국제교류 서포터즈 SCVA 운영, 수원 글로벌 뉴스 방송, 세계 언어·문화 연수, 국제활동 멘토와의 만남
* 국제교류사업	수원 언어·문화 연수, 수원-후쿠이 초·중학생 미술작품교류, 외국인 취업지원 프로그램, 수원권 대학교 국제교류 협의회, 유학생 연합 체육대회, 국제자매도시의 밤 운영, 시즈오카시 대학생 초청사업, 국제자매도시 사진 및 기념품 순회전시, 지난대학교 여학연수, 홈스테이 운영
* 국제개발협력사업	캄보디아 '수원마을' 지원사업
* 민간단체 국제교류지원사업	
* 외국인·글로벌지원사업	아주·수원 석사과정장학지원 프로그램, 한국어 교실 운영, SWCIC 한국문화데이, 외국어 통·번역 업무 지원
〈부산국제교류재단〉	내향형+외향형 국제교류
* 외국인 상담서비스 제공	외국인 종합서비스 운영, 통·번역 서비스, 부산 Info 서비스
* 외국인 자립역량 강화	외국인 활동지원 및 생활정보 제공, 외국인 한국어 능력함양 프로그램 운영, 시민·외국인 교류라운지 운영
* 부산지역 외국인 유학생 지원	해외 우수인재 부산유치 지원, 유학생 학업 및 생활 지원, 유학생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자매·우호도시 국제교류 협력	시민중심 문화·체육 교류, 해외 자매·우호도시 교류 활성화, 민간·국제교류활동 지원
* 글로벌 인재양성 및 국제개발 협력	부산 글로벌인재 교류 및 양성, 성과창출형 국제개발협력사업(ODA) 시행
* 유라시아 관문도시 부산 위상 강화	경제통상교류 네트워크 확대, 유라시아 지역 경제·문화 교류지원, 유라시아 협력센터 운영
* 글로벌 일자리 창출 및 지원	국내·외 취업·인턴십 사업체 발굴 및 파견, 국내·외 스타트업 캠프 파견 및 창업 지원
* 부산시민 글로벌 의식 함양	세계인과 함께하는 어울마당, 세계문화교실, 부산 글로벌 서포터즈

자료: 광주국제교류센터, 수원시국제교류센터, 부산국제교류재단 홈페이지

광주국제교류센터의 주요 활동을 살펴보면 지역 내 외국인들이 광주지역에 동화될 수 있는 생활 상의 지원, 교육과 커뮤니티, 인턴쉽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인턴쉽의 경우 외국인 역시 채용을 하며, 수출기업 통번역 사업 서무 지원, 외국인 종합안내 서비스 지원, 국제교류행사 홍보 및 행사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외국인이 지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지역 내 외국어 능력이 필요한 기업 및 기관에 도움을 주고 있다.

수원시국제교류센터는 국제교류사업, 국제개발협력사업, 민간단체국제교류지원사업, 외국인·글로벌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 가운데 가장 두각을 보이는 사업으로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을 들 수 있다. 수원시는 캄보디아 시엠립주 프놈끄라옴에 수원마을을 조성하고 3단계 사업을 시작하여 마을환경 개선과 중·고등학교 신축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도시 친화형 물순환 시스템을 구축하여 화장실과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¹⁴⁾.

부산국제교류재단은 외향적·내향적 국제화 전략을 동시에 추진하는 지역으로 지역 내 외국인의 생활 편의, 인턴쉽 등 다양한 지원활동과 함께 기업 및 기관으로부터 통역서비스, 자원봉사단 등을 구성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ODA 사업을 통해 부산 지역의 도시 브랜드를 향상시키고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부산 인재들의 해외 진출 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있다.

2) 한국국제교류 실천네트워크

2013년 10월 16일 한국국제교류재단(KF)과 부산국제교류재단(BFIC), 인천관광공사¹⁵⁾, 광주국제교류센터(GIC)는 중앙과 지방의 국제교류 전문기관 상호 간 교류, 협력증진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의 국제역량 강화, 시민의식 함양, 다양한 국제교류 우수사례의 발굴, 개발 및 실천을 통해 지방 국제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국가 간 상호 이해 및 우호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한국국제교류 실천네트워크라는 사업을 발족하였다(표-3 참고)¹⁶⁾.

14) 뉴스천지, '캄보디아 수원마을 '프놈끄라옴 중·고교 건립' 착공식 개최', 2016.03.02

15) 인천국제교류재단은 2015년 인천시 산하기관 통·폐합으로 '인천관광공사'로 명칭 변경

16) YACHTPIA, "한국국제교류실천네트워크 공식 발족", 2013.10.15

〈표-3〉 실천네트워크 회원기관과 주요 협력 내용

	기관	가입시기	협력 내용
1	부산국제교류재단(BFIC)	2013.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교류, 공공외교 우수사례 등 공동 발굴과 개발 및 확산 ■ 기관 상호 발전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 및 협력 ■ 국제교류 증진, 공공외교 확산 등과 관련 법령, 기타 사항에 대한 공동 대처 ■ 기타 실천네트워크의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한 사업 등
2	인천관광공사	2013.10	
3	광주국제교류센터 (GIC)	2013.10	
4	수원시국제교류센터 (SWCIC)	2013.12	
5	한국국제교류재단 (KF)	2013.10	
6	대구경북국제교류협의회 (DGIEA)	2014. 2	
7	대전국제교류센터 (DICC)	2014. 3	
8	평택시국제교류재단 (PIFF)	2015. 3	
9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JBCIA)	2016. 3	

자료: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국제교류실천네트워크 개요”, 2016.10.17

실천네트워크 회원기관은 2013년 5곳에서 2016년 9곳으로 증가하였으며,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지역국제교류재단과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 중이다. 공동협력 사업으로는 KF청소년희망커뮤니티, KF테마답사를 들 수 있고, KF세계문화 공연지역 개최협력은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 공모하여 진행된 사업이다(표-4 참고).

〈표-4〉 2016년 실천네트워크 주요 협력 사업

사업	협력 기관	시기
KF청소년희망커뮤니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국제교류센터(GIC) - 대구경북국제교류협의회(DGIEA) - 부산국제교류재단(BFIC) - 수원시국제교류센터(SWCIC) - 한국국제교류재단(KF) 	'16. 5~8월
KF테마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국제교류센터(GIC) - 수원시국제교류센터(SWCIC) - 한국국제교류재단(KF) 	'16.10~11월
KF세계문화 공연지역 개최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JBCIA) - 평택시국제교류재단(PIFF) 	'16. 6월 '16. 7, 10월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F의 한·베 공동체미술 교류사업 한국측 봉사단 파견 협력 (대구경북국제교류협의회(DGIEA)) - 해외 한국관련 자료 배포 지원 (대전국제교류센터(DICC)) 	

자료: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국제교류실천네트워크 개요”, 2016.10.17

이처럼 지역국제교류재단은 한국국제교류 실천네트워크 사업을 통해 여러 유형의 협력사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매년 공동 워크숍을 개최하여, 실천네트워크 회원기관별 사업계획 발표 및 우수사례 공유, 실천네트워크 협력 현황 공유, 유관기관 인사 초청 강연, 실천네트워크 회원기관간 협력방안 토론회 및 간담회 등을 통해 협력 수준을 강화하고 상호정보 교류 및 내실성 있는 지역국제교류의 초석을 다지고 있다.

4. 제주국제교류재단 설립 필요성과 환경조성 방안

앞서 이론적 배경과 지역국제교류재단의 현황, 관련 기관 간의 협력적 메커니즘 등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만으로 제주지역 역시 국제교류재단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엔 아직 고려해야 할 요소가 더욱 많을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의문에 대한 답변으로 제주지역과 일부 기타 지역의 외국인 규모를 살펴보고, 제주지역 국제화의 의지라 할 수 있는 실국별 주요 관련 사업, 제주지역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는 혁신도시와 연계형 사업발굴에 대한 제주국제교류재단의 역할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1) 필요성

(1) 제주지역 내 외국인 규모

2015년 제주지역 외국인 규모는 1만 6,960명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 규모가 가지는 의미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다. 첫째, 만약 1만 6,960명보다 적은 외국인 규모를 보이는 지역에서 지역국제교류재단(센터)이 이미 설립되어 있다면 제주지역은 지역국제교류재단 설립을 더욱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제주지역과 유사한 외국인 규모를 보이는 지역들이 지역국제교류재단(센터)을 설립한 시기의 외국인 규모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국제교류재단과 실천네트워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국내 지역국제교류재단의 8개 지역¹⁷⁾ 중 광주국제교류센터는 2003년 광주지역 외국인 규모는 4,921명에서

17) 부산국제교류재단, 인천관광공사(2015년 인천도시공사의 관광사업본부와 국제교류재단, 의료관광재단을 통합해 설립), 광주국제교류센터, 수원시국제교류센터, 대구경북국제교류협의회, 대전국제교류센터, 평택시국제

2015년 1만 8,455명으로 증가하였으며, 비록 2015년 제주지역 외국인 규모는 광주 지역의 외국인 규모보다 다소 낮지만, 2003년 광주지역 외국인 규모보다 명확하게 높은 규모를 보이고 있다¹⁸⁾. 대전국제교류센터는 2005년 설립되었으며, 당시 외국인 규모는 7,897명으로 2015년 제주지역보다도 크게 낮은 수준을 보이며, 2015년 대전 지역 외국인 규모는 1만 6,416명으로 제주지역의 외국인 규모보다 다소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평택시국제교류재단은 2013년 설립 시 외국인 규모가 1만 4,596명이었으며, 2015년은 1만 8,644명으로 제주지역보다 다소 높은 규모를 보인다.

즉, 2015년 제주지역 외국인 규모와 국내 몇몇의 기타지역 외국인 규모를 비교해 보면 제주지역은 지역국제교류재단을 설립해야 할 시기가 과거에 이미 지났으며, 설립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2) 제주특별자치도 실국별 다양한 국제교류

제주특별자치도의 여러 실국 및 부서는 국제교류를 수반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표-5 참고). 각 사업의 교류 유형을 고려하면, 국제홍보형 사업, 국제협력형 사업, 외국지원형 사업으로 구분이 가능할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유형의 국제교류형 사업이 각 실국별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은 제주지역의 국제화는 매우 중요한 사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이자 제주지역국제교류재단 설립의 필요성을 반영하는 근거라고 사료된다.

〈표-5〉 주요 실국별 국제교류형 사업

실국명	사 업 명
경제통상산업국	수출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확대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지원
	사회적경제조직 경쟁력 제고 및 교류·협력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벤처기업 육성 협업체계 구축
	해외통상사무소 운영(일본 통상사무소 설립 등)
	지속가능한 제주형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한중일 민간 경제교류사업
공보관	블로그&SNS 활용 소셜 마케팅 강화

교류재단,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18) 사용 가능한 통계데이터가 2003년부터인 관계로 1999년 광주지역 외국인 규모를 제시하지 못함

실국명	사업명
관광국	선진 카지노 감독기구와 네트워크 구축 및 업계 공동마케팅 지원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제주의 원형가치 국외 홍보 추진
	2016 ODA(공적개발원조) 사업 추진
	경제 우위의 스포츠관광객 유치 및 대회 육성
소방안전본부	재난활동 등 현장 참여한 의용소방대 보상
특별자치행정국	민간(사회)단체와 협력하는 동반자적 관계 구축
	정착주민과 함께하는 소통·협력 사업 추진
	민간사회단체 건전한 육성과 화합의 협력관계 구축
	청년이 주인인 제주형 청년정책 추진
	제12회 제주포럼 4·3세션 참여
	세계와 교감하는 품격 높은 기획전 개최
	예술과 창의가 살아 숨 쉬는 체험프로그램 운영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 제주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추진
한라도서관	중국 하이난 도서관과의 교류협력 활성화 추진
해양수산연구원	외국과의 연구교류를 통한 새로운 수산기술 습득
환경보전국	빗물 활용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 추진
	제주특별자치도 물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생태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롤모델 추진
	세계지방자치단체 사이버환경포럼 개최

그러나 각 실국별로 분산되어 추진되는 국제교류형 사업은 아쉽게도 인력과 시간의 비효율성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만약 제주지역의 분산된 국제교류형 사업을 전담하여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는 제주국제교류재단을 설립할 수 있다면, 행정적 비효율성의 감소와 함께 전문성을 더욱 높여 제주지역의 국제화 수준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며, 제주국제교류재단의 설립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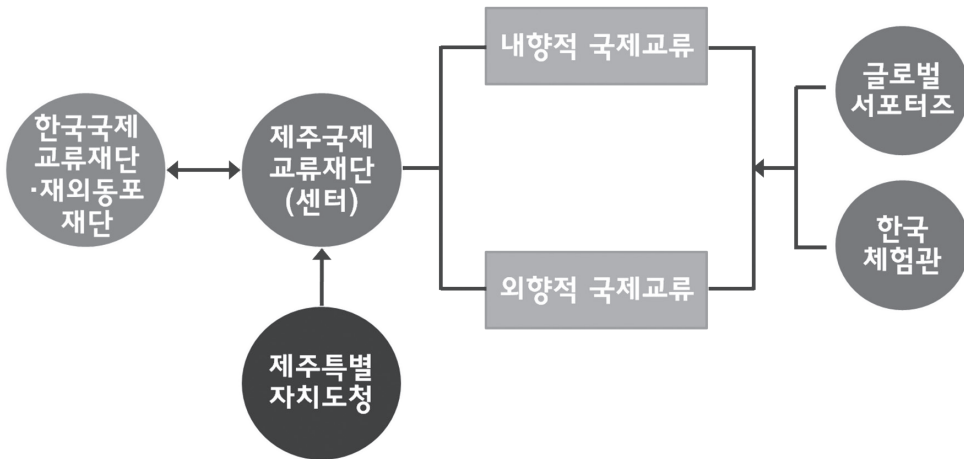
(3) 혁신도시와 연계형 사업발굴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제자유도시 추진의 강력한 동력과 제주혁신도시¹⁹⁾의 주요 기능인 국제교류와 교육·연수 기능을 기회로 교육과 관광이 어우러진 국제교류의 중심이자 국제자유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하고 있다.

19) 혁신도시의 구상은 2003년 6월 12일 대구에서 개최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구 구상' 국정과제 회의에서 수도권 과밀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방침을 발표하면서 시작되었으며, 2004년 4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2004년 8월 공공기관 이전방안의 기본원칙, 추진방향, 혁신도시건설계획 등이 발표되었으며, 2005년 6월 24일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수립하면서 본격화 되었음

현재 제주혁신도시에는 7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2개 기관인 재외동포재단과 한국국제교류재단은 2017년 말 이전을 예정하고 있다. 제주지역은 혁신도시의 기능이 제주지역에서 더욱 흡수되고 현지화 될 수 있도록 해야만 하는 상황이며²⁰⁾, 이를 위한 수단으로 제주국제교류재단의 설립은 더욱 중요해진다.

〈그림-3〉 제주국제교류재단의 중간 매체적 기능과 추가 관련 사업



제주국제교류재단은 제주특별자치도청의 실국별 주요 정책과 혁신도시의 공공기관 간에 연계형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중간 매체로써 촉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는 제주혁신도시 설립 목적에 맞춰 제주지역 국제화를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기 때문이다(그림-3 참고).

제주국제교류재단은 제주지역의 내향적 국제화와 외향적 국제화 수준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지역 내 글로벌 서포터즈, 한국의 문화·역사 체험관 등을 조성하여, 한국국제교류재단과 재외동포재단의 제주 이전 이후 지역 내 국제행사의 개최 가능성을 더욱 제고시켜, 제주지역의 국제화에 더욱 조력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제주국제교류재단은 지역 내 외국인의 현지화, 제주 국제화의 선진화 등의 부가적인 기대 효과가 더욱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20) 실제 이전한 공공기관과 지역 경제주체 간에 협력 수준이 낮아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와 지역주체 간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용역 역시 진행한 바 있음

2) 환경조성 방안

제주국제교류재단이 제주지역 국제화 수준 향상과 내실성 있는 국제교류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이 있다. 첫째, 내향적·외향적 국제화에 기여할 수 있는 체계적인 사업계획 수립, 둘째, 제주특별자치도 실국별 국제교류 사업과 혁신도시와의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메커니즘 형성, 셋째, 쉽게 방문할 수 있는 지리적 위치 설립, 넷째, 제주국제교류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가칭) 등 수립을 들 수 있다.


내향적, 외향적 국제화를 제고할 수 있는 사업은 기존의 기타 지역에서 추진 중인 여러 사업을 참고 및 보완을 통해 계획하고 제주지역 현황에 근거한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제주지역이 관광지이고, 섬이라는 특수성과 함께, 지역 내 외국인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좀 더 지역현실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주요 실국과 제주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주요 기능을 연계하여 중간에서 조율하고 공동사업을 추진하여, 내실성 있는 국제교류형 사업을 지원 및 추진해야 할 것이다²¹⁾. 일례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은 “2016 ODA (공적개발원조) 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동티모르 메띠나로(Metinaro)에 담수공급시설의 지원을 추진하고, 몽골 자르갈탄(Jargalkhaan)에 김치생산시설의 지원을 계획한 바가 있다. 최근 ODA 사업은 생산설비 이외의 분야인 정보화 관련 부분에서도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제주국제교류재단은 혁신도시의 NIA 글로벌 센터와 협력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제주지역과 자매·우호 관계를 체결한 해외 공무원에게 ICT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ODA 형식으로 제주지역 국제교류의 가치를 더욱 높여야 할 것이다.

제주국제교류재단의 공간적 위치는 내·외국인이 비교적 쉽게 방문할 수 있는 곳에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제주국제교류재단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사업의 수요를 높이고 내향적 국제화를 높이기 위해 기초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겠다.

제주국제교류재단의 설립 목적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전담하여 수행하여야 하는 사업의 범위와 목적을 규정함과 동시에, 제주국제교류재단의 재산 범위와 재원

21) 실제 제주특별자치도 주요 업무보고 중 국제교류의 내실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항목을 구성하고 사업위탁 및 운영지원, 사업계획 및 결산, 보고 및 검사, 운영규정 등을 포함한 제주국제교류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가칭)를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²²⁾. 마지막으로 제주국제교류재단의 설립으로 더욱 많은 세계인이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찾고, 기업가가 제주의 기회를 더욱 중시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더 나아가 새로운 모멘텀으로 제주가치를 더욱 증진시키는데 기여하길 바란다. 

* 참고문헌

이정석, “자매도시 간 문화교류의 활성화 및 지역활성화와의 연계 방안-부산광역시와 일본 자매도시 간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016

신경구, “지역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시민단체의 역할과 의의, 한국지역사회학회 가을 학술대회”, 2016.11.28.

제주특별자치도, “주요행정총람-국제자유도시분야”, 2016.06.10.

제주특별자치도, “2017년 주요업무보고”, 2016.09

뉴스천지, ‘캄보디아 수원마을 ‘뜨놈끄라움 중·고교 건립’ 착공식 개최’, 2016.03.02

YACHTPIA, “한국국제교류실천네트워크 공식 발족”, 2013.10.15

김미연,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확산과 동형화”,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010.12

우양호·이정석, “지방정부 국제교류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도시간 자매결연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2010

육동일, “지방자치시대 내향적 국제화의 방향과 과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2009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2007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백서”, 2008

정낙현, 이홍규,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센터의 설치시설에 관한 연구-일본의 국제교류센터사례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2008

김준식, “정부 및 NGO의 내향적 국제화 현황과 방향”,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2008

강병수·이시철, “대구국제교류센터의 조직 및 운영계획”, 대구경북연구원, 2005.7

김문조, “네트워크 사회의 이념적 기초와 실천 전략”, 한국사회역사학회, 2005

Kelly, K. “New Rules for the New Economy: 10 Radical Strategies for a Connected World”, Viking, 1994.

X Yang, “A New Theory of Demand and Supply and Emergence of International Trade from Domestic Trade”, Pacific Economic Review, 1996

지역국제교류재단 홈페이지

통계청

국가법령정보센터

22) 이와 관련해서는 ‘부산광역시 국제교류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평택시 국제교류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타 지역국제교류재단의 운영 조례를 참고할 수 있음